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24년 2월
석사학위 논문

몽골유학생의 상호문화 감수성과
성격강점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조선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학과

리학박수랭 켈맥

몽골유학생의 상호문화 감수성과
성격강점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Influence of Intercultural Sensitivity and
Character Strength on Adjustment to College
for Mongolian International Students

2024년 2월 23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학과

리학박수랭 켈맥

몽골유학생의 상호문화 감수성과
성격강점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권 해 수

이 논문을 상담심리학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10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학과

리학박수랭 켈맥

리학바수랭 켈맥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김 나 래 (인)

위 원 김 택 호 (인)

위 원 권 해 수 (인)

2023년 12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4
II. 이론적 배경	5
1. 몽골 유학생	5
1. 몽골 유학생의 국내 진학 현황	5
2. 몽골 유학생의 특징	5
2. 대학생활적응	6
1. 대학생활적응 정의	6
2. 몽골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관련 연구	7
3. 몽골유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8
3. 상호문화감수성	10
1. 상호문화감수성 정의	10
2. 상호문화감수성과 대학생활적응	11
4. 성격강점	12
1. 성격강점 정의	12
2. 성격강점과 대학생활적응	13
III. 연구 방법	15
1. 연구 대상	15

2. 측정 도구	16
1. 상호문화감수성 척도	16
2. 성격강점 척도	17
3. 대학생활적응 척도	19
3. 자료 분석	19
IV. 연구 결과	20
1.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치	20
2. 상관분석 결과	21
3. 집단 간 차이	22
1. 성별에 따른 차이	22
2. 한국 체류 기간에 따른 차이	23
3. 유학 형태에 따른 차이	24
3. 한국어능력시험 점수에 따른 차이	25
4. 학점에 따른 차이	26
4. 상호문화감수성과 성격강점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의 차이	27
V. 논의 및 제언	28
참고문헌	32
Abstract	35
부록	38

표 목 차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15
표 2. 상호문화 감수성의 하위요인	17
표 3. 성격강점 하위요인	18
표 4.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치	20
표 5. 상호문화감수성과 대학생활 적응 간의 상관관계	21
표 6. 성격강점과 대학생활적응 간의 상관관계	22
표 7.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의 차이	23
표 8. 체류 기간에 따른 주요 변인의 차이	23
표 9. 유학 형태에 따른 주요 변인의 차이	24
표 10. 한국어능력시험 점수에 따른 주요 변인의 차이	25
표 11. 학점에 따른 주요 변인의 차이	26
표 12.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27

그 립 목 차

그림 1. 연구 모형	4
-------------------	---

ABSTRACT

Influence of Intercultural Sensitivity and Character Strength on Adjustment to College for Mongolian International Students

Lkhagvasuren Tselmeg

Advisor : Prof. Kweon Haesoo, Ed. D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intercultural sensitivity and personality strengths on the adjustment of Mongolian international students to university life.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120 Mongolian international students enrolled in 47 universities across the country were surveyed on the Intercultural Sensitivity Scale, Personality Strength Scale, and University Life Adjustment Scale.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through SPSS 26.0, and descriptive statistical and dental correlation analysis of major variables was performed, and the difference in scores between major variable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gender, length of stay in Korea, type of study abroad, Korean Language Proficiency Test, and credits) was analyzed. Lastl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relative influence of intercultural sensitivity and personality strengths on the ability to adapt to university life.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intercultural sensitivity, personality strength, and adjustment to university life. From this, it can be seen that the higher the intercultural sensitivity and the higher the personality strengths of Mongolian

international students, the better they are adapting to university life. Secon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level of intercultural sensitivit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it was found that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main variables according to gender, length of stay, and type of study abroad, and that there was a difference in intercultural sensitivity according to the Korean Language Proficiency Test score and grades. Thir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level of personality strength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gender and TOPIK scores, and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according to the length of stay, credits, and study abroad type. These results show that the longer they spend abroad, the more they develop their individual strengths as they face challenges. In particular, this study showed high scores on personality strengths such as wisdom, courage, and transcendence, suggesting that the cognitive strengths, courageous approach to problems, and the ability to realize goals develop at the same time as international students are exposed to new standards in a new environment while living in a foreign country. Fourth,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level of adjustment to university lif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it was found that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the major variables according to gender, TOPIK scores, and grades, bu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depending on the length of stay and the type of study abroad. In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the level of adaptation to university life among students who stayed in Korea for 6 months to less than 1 year and the type of study abroad was significantly higher. It is understood that the students of the language program have not yet faced the challenges of the new environment, that the subjects they study are not difficult, and that they are relatively stable academically and psychologically as the honeymoon period of cultural adaptation continues. Fifth, it was found that the intercultural sensitivity and personality strengths of Mongolian international student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ir adaptation to university life. In this stud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intercultural sensitivity and personality strengths on university life adjustment, and two variables accounted for 12.1% of Mongolian

international students' adjustment to university life. Among the two variables, personality strengths were found to have a higher relative influence on college life adjustment. From this, it can be seen that not only academic ability but also cultural awareness and individual personality strengths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Mongolian international students' successful adaptation to university life. Lastly,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adaptation of Mongolian international students to university life were presented, and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presented.

Key Words : International students in Mongolia, Intercultural sensitivity, Personality strengths, University adaptability

초 록

몽골유학생의 상호문화 감수성과 성격강점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리학박수랭 젤맥

지도 교수 : 권해수

상담심리학과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

본 연구의 목적은 상호문화감수성과 성격강점이 몽골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전국 47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120명의 몽골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상호문화감수성 척도, 성격강점 척도, 대학생활적응척도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6.0을 통해 분석되었으며,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치과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일반적 특성(성별, 한국 체류 기간, 유학 형태, 한국어능력시험, 학점)에 따른 주요 변인 간의 점수 차이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상호문화감수성과 성격강점이 대학생활 적응 능력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호문화감수성과 성격강점, 대학생활적응 간에는 유의한 상관성이 나타났다. 이를 통해 몽골유학생의 상호문화감수성이 높고 성격강점이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을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상호문화 감수성 수준을 분석한 결과, 성별, 체류 기간 및 유학 형태에 따른 주요 변인들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한국어능력시험 점수와 학점에 따라 상호문화 감수성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몽골유학생 중에서 상호문화 감수성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언어적, 학습적 능력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격 강점 수준을 분석한 결과 성별, 한국어능력시험 점수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체류 기간, 학점, 유학 형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외국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몽골 유학생들은 여러 문제를 직면하면서 유학생 개인의 강점이 더욱 발달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지혜, 용기, 초월성 등 성격 강점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외국에서 생활하면서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기준을 접할수록 유학생의 인지적 강점, 문제에 대한 용기 있는 접근과 목표 실현 능력이 동시에 발달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넷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 수준을 분석한 결과, 성별, 한국어능력시험 점수 및 학점에 따라서는 주요 변인 간에 차이가 없었던 반면에 체류 기간, 유학 형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한국 체류 기간이 6개월에서 1년 미만인 학생과 유학 형태 중 언어학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 수준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학 형태의 학생들은 아직 새로운 환경이 주는 도전에 직면하지 않았으며 공부하는 과목들이 어렵지 않고 문화적응 허니문 기간이 계속되면서 학업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비교적 안정되게 나타난 것으로 이해된다. 다섯째, 몽골 유학생의 상호문화감수성과 성격 강점이 대학생활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상호문화감수성과 성격강점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2개의 변인이 몽골 유학생 대학생활 적응의 12.1%를 설명하고 있었다. 2개 변인 중에서 특히 성격강점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몽골 유학생이 대학생활 적응을 성공적으로 하는 데 학업적인 능력 뿐만 아니라 문화에 대한 인식과 개인의 성격강점이 유의한 영향을 크게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몽골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을 높이기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으며, 본 연구의 한계와 추후 연구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몽골 유학생, 상호문화감수성, 성격강점, 대학생활적응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는 외국인 유학생의 상호문화 감수성(Intercultural Sensitivity)과 성격강점(character strength)이 몽골유학생 대학생활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연구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해외에서 공부하는 것은 많은 학생들에게 신나는 기회이지만, 특히 새로운 언어, 문화, 그리고 학업 시스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새로운 문화와 학문적 환경에 적응하는 것에 있어서 도전적일 수도 있다. 그래서 유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에 대해 연구하는 것은 중요하며, 또한 유학생들이 직면한 도전과 그들의 학업 성공, 사회 통합, 그리고 전반적인 웰빙을 지원하는 전략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최근 한국 대학교에는 문화적, 언어적, 민족적 배경이 다양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학습하고 있다. 교육부가 발표한 학위과정 유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6,892명으로 2003년 12,314명에 비해 1,350배 증가하였다고 한다(교육부, 2023). 이렇게 유학생들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원인은 한국 정부의 유학생 유치 정책과 관련이 있다. 교육부에서는 2004년에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Study Korea Project’를 진행하였다. 이처럼 외국인 유학생 수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국내 외국인 유학생 관련 연구들은 유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심리적 적응, 문화적응 등과 같이 적응에 초점을 맞추고, 적응을 돕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주로 하고 있다.

한국 대학교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선행 연구는 다양한 방면에서 수행되어 왔다. 외국인 유학생들의 적응에 대한 연구는 유학생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과 자원을 제공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여기에는 언어 과정, 문화적 활동, 상담 서비스, 학업 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재정적 지원과 같은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포함된다. 이러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들이 학업과 개인적인 삶에서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

하지만 외국인 유학생들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과 프로그램을 수행할 때, 그들의 국적, 문화적, 언어적, 사회적 배경과

경험을 고려하고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 국가는 그들만의 문화, 역사, 경제, 교육 체계 등이 있으며 이러한 차이점들이 외국인 유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전에 한국에서 진행된 외국인 유학생과 관련된 연구들은 연구참여자들이 주로 중국과 베트남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전 연구 결과가 다른 나라 출신의 외국인 유학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외국인 유학생 집단 특성을 고려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최근 몽골 유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그들의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편이므로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몽골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과정을 다면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몽골 유학생들은 중국이나 베트남 유학생에 비해 학생들의 수가 적어 고립감과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다. 이처럼 학생 공동체의 인원이 많지 않을 경우 사회적 지원과 학업적인 도움을 받을 기회를 낮추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될 수 있으며, 학업 성취도와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몽골 유학생은 정서적인 어려움이나 대학생활 적응의 어려움을 모국에서 온 몽골 유학생들과의 교우 관계를 통해 극복하는 경향이 있다(문세진, 조완성, 김민, 2020). 한편으로는 유학생의 대인관계가 모국 출신 친구와의 관계로만 한정되면 한국문화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오세경, 김미순, 백보예바 아이굴 2015). 한국인 학생과 친하게 지내는 외국인 유학생들은 그렇지 않는 유학생보다 대학생활적응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에르덴척트 바이가리, 김경란, 석동헌 2023). 한국인 학생과 좋은 교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한국어를 익히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며 학업 적응과 심리적 안녕감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몽골 유학생들이 본국 친구뿐만 아니라 한국 학생들 및 다른 나라의 학생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그들의 대학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몽골 유학생들은 언어 장벽 때문에 다른 문화 친구를 사귀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한국어로 말할 때 자신을 잘못 표현하거나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오해할까 봐 걱정하는 경우가 많다(한수정, 2016).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몽골 유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여러 변인 중에서 성격 강점과 상호문화 감수성의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성격 강점은 개인이 도전에 대처하고 회복력을 기르도록 도울 수 있는 인내, 친절, 그리고 자기 훈련과 같은 긍정적인 개인적 자질을 말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성격 강점이 몽골 유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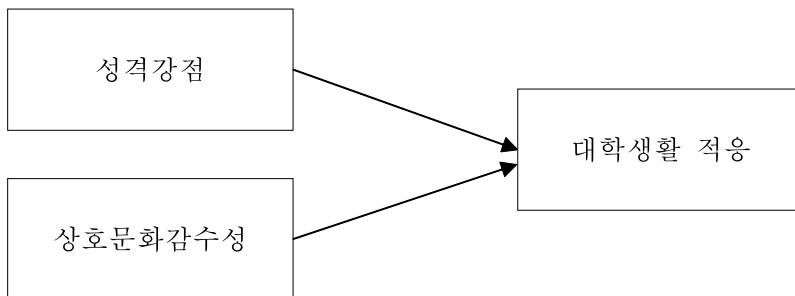
한편, 상호문화 감수성은 서로 다른 문화적 관점, 규범, 가치를 이해하고 인식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그것은 자신의 문화적 편견을 인식하고 다른 문화에 대해 배우고 참여하려는 의지를 포함한다. 본 연구는 상호 문화적 감수성이 몽골 유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요인이 몽골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함으로써 몽골 유학생들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지원 정책 및 대학적응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한국 대학에 재학 중인 몽골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상호문화 감수성과 성격 강점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몽골인 유학생의 상호문화감수성은 대학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몽골인 유학생의 성격강점은 대학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상의 연구문제를 확인하기 위하여 설정한 연구 모형을 [그림 1]에 제시하였다.



[그림 1] 연구 모형

II. 이론적 배경

1. 몽골 유학생

1. 몽골 유학생의 국내 진학 현황

본 연구에서는 유학생 수로 3위 기록하는 몽골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1990년 한국과 몽골이 수교한 이후 한국에 몽골 유학생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2022년 기준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몽골인 유학생의 수는 총 7,348명이며, 전체 해외 유학생 중에서 4.4%를 차지한다(교육부, 2023). 이 중에서 어학연수생 2,282명, 대학(전문대학 포함) 2,778명(46.1%), 석사과정 1,716명, 박사과정 422명이다. 기타 연수생에 해당하는 몽골인 유학생 수가 131명이다. 그러나 제한 몽골 유학생 수가 많을수록 새로운 상황이나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여 중퇴해서 귀향하거나 불법체류한 학생 수도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외국인 유학생 중도 포기 및 불법체류자 현황(2018~2021)’에 따르면 지난해 말 유학을 중도 포기한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6947명이다. 국가별을 보면 몽골인들은 불법체류자 수 488명으로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에 이어 3위를 기록하고 있다(교육부, 2023).

몽골인 유학생의 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원인으로 한국과 몽골의 경제적인 차이를 꼽을 수 있다. 몽골 유학생들은 한국에 유학 올 때 사회적으로 기술적으로 높이 발전한 한국에서 학습하는 것은 얻기 힘든 기회라는 기대를 가지고 온다. 한국에 몽골인 유학생의 36%는 정부 초청 장학생이고 나머진 학생은 대학교 장학금이나 개인적 사비로 학습하고 있다(교육부, 2023). 따라서 그들은 학비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다.

2. 몽골 유학생의 특징

사회적 상호작용과 관련하여 몽골에서는 서로에게 말을 할 때 존댓말이나 형식적인 호칭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대인관계에서 나이가 엄격하게 강조되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나이와 직위는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존

경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존댓말과 공식적인 호칭의 사용이 중요하게 여긴다. 따라서 한국에서 공부하거나 생활하는 몽골 학생들이 이러한 사회적 규범과 기대의 차이로 인해 대인관계에서 오해를 겪을 수도 있다.

몽골 학생들은 한국 대학의 학문적 요구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주요 원인으로서는 교수법과 교육 배경의 차이 때문이라고 한다. 몽골교육과학 문화부(2015)의 보고서에 따르면 몽골의 교육 시스템은 제한된 자원, 교사 부족, 교육에 대한 불평등한 접근 등과 같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한국 대학에 입학하는 몽골 학생들의 준비 부족에 기여할 수 있으며 잠재적으로 그들이 직면하는 학문적 요구와 문화적 차이에 적응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한다. 김현진(2018)의 중국과 베트남, 몽골, 일본 출신 유학생의 문화적응 비교연구를 살펴보면, 몽골 유학생들이 한국문화를 상대적으로 잘 받아들이지만 주변화되는 경향도 보였다. 또한 중국과 일본 유학생에 비해 몽골 유학생은 학비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많고, 자신을 위한 시간이 적기 때문에 심리적인 여유가 없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문화적으로는 몽골 민족은 오랜 유목민으로서의 문화적 전통을 가지고 있어서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오누루, 2016).

2. 대학생활 적응

1. 대학생활 적응의 정의

대학 적응은 학생들이 대학 환경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도전과 변화에 적응하고 대처하는 과정을 말한다. 그것은 소속감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학업에서 개인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포함한다. 전반적으로, 대학생활 적응은 다양한 기술, 자원 및 지원을 필요로 하는 복잡하고 다면적인 과정이다. 성공적인 적응은 학생들의 행복과 학업의 성공에 중요하고 그들 개인의 삶과 학업에 오래 지속되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Barker & Siryk(1984)은 개인의 내적 적응과 대학의 외적 환경에 대한 적응을 모두 포함하는 대학 적응의 개념을 제안했다. 대학적응설문지(SACQ)는 대학 적응을 학업 적응, 사회 적응, 개인 정서적 적응, 그리고 대학 환경 적응의 네 가지 주

요 범주로 분류했다. 첫 번째 변수는 학업 적응으로 학생들이 대학의 학업 요구에 적응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낸다. 그것은 시간 관리, 학습 능력, 학업 자기 효능감, 학업 성취도와 같은 요소들을 포함한다. 두 번째 변수는 사회 적응으로 학생들이 동료, 교직원 및 직원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수립하고 유지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낸다. 그것은 사회적 지원, 사회적 기술, 그리고 캠퍼스 활동에 대한 참여와 같은 요소들을 포함한다. 세 번째 변수는 개인-정서적 적응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감정을 관리하고 대학 생활의 스트레스와 도전에 대처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낸다. 그것은 자존감, 불안, 우울, 그리고 전반적인 정서적 행복과 같은 요소들을 포함한다. 마지막 변수는 대학환경 적응 변수로 학생들이 캠퍼스 문화, 규칙 및 규정, 시설을 포함한 전반적인 대학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낸다. 그것은 생활 준비에 대한 만족, 캠퍼스 정책에 대한 편안함, 그리고 대학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과 같은 요소들을 포함한다.

2. 몽골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관련 연구

몽골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연구들은 미비한 편이나, 한국에 유학을 온 몽골 유학생들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몽골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재한 몽골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직면하는 어려움을 학업적 어려움, 심리적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사회문화적 어려움 등으로 나눌 수 있다(우누루 2016).

몽호온드랄(2016) 연구에서는 몽골 유학생의 전반적인 적응이 좋은 것으로 보고 되었지만, 이 연구 설참여자의 58.5%는 대학 공부가 어렵다고 느꼈고, 상당수의 학생들은 각각 우울하거나(35.4%) 전반적으로 불행하다(29.2%)고 느꼈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에 있는 몽골 유학생들이 상당한 심리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몽호온드랄 2016). 유학생 대학생활 적응에 교우 관계가 큰 영향을 미치며 교우 관계가 좋을수록 대학생활 적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ATKHISHIGBIMEDEKHGUI, 2018). 그리고 대학생활 적응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많이 직면한다고 했다. 또한 이 연구에서 몽골 유학생 대학환경 적응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개인의 정서적 적응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기혼인 재한 몽골 유학생이 미혼인 학생보다 대학생활 적응수준이 높았으며, 기숙사에서

사는 제한 몽골 유학생이 다른 곳에서 사는 유학생들보다 대학생활 적응 수준이 높았다는 결과가 있다(한유경 2008).

3.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몽골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선행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몽골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언어 장벽이다. 언어 장벽은 공유 언어의 부족 또는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능력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말한다. 그것은 생각을 이해하거나 표현하는 것의 어려움, 의사소통의 오류, 언어 능력의 차이로 인한 오해와 같은 문제들을 포함할 수 있다. 언어 장벽은 학업 및 사회적 환경에서 국제 학생들에게 몇 가지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 유학생들은 대학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는 동안 강의를 이해하고, 수업에 참여하고 그들의 생각을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경험한다. 이를 통해 유학생들은 좌절, 불안을 느끼고, 학업 능력에 대한 자신감 부족하게 된다. 언어 장벽은 유학생과 교직원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제 학생들은 의사소통 장벽으로 인해 친구를 사귀고, 학생 동아리에 가입하고, 교실 밖에서 사회 활동을 참여하는 것에 도전한다. 그리고 유학생들은 국내 한국인 학생에 비해 입학하는 조건이 상대적으로 관대하기 때문에 학업 능력 면에서 따라가기 어렵다. 유학생은 한국에 와서 1~2년 동안 한국어를 공부하고서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보고 3급 이상을 얻는다면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지만 그동안 배운 언어능력으로는 대학의 전문적인 수업 주제를 따라가기에는 벅차다. 이선영과 나운주(2018)의 연구 결과는 언어 장벽이 국제 학생들의 적응 어려움의 중요한 변수라는 것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더 많은 언어 장벽을 경험했다고 보고한 외국인 학생들은 심리적, 사회적 스트레스 수준은 높았으며 학업과 사회적 적응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두 번째는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능력이다. 대인관계는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 소통, 연결 등을 의미한다. 대인관계를 원활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하다. 의사소통 능력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이해하는 능력이다. 대학생들은 교수, 동기, 동아리 동료 등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하며 정보를 교환하고 도움을 주고받는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유지해야 한다(에르멩척트

비아거리, 김경란, 석동현). 김세경(2018)에 의하면, 유학생의 경우 대인관계를 잘 유지하지 않으면 대학생활 적응 기간이 길어진다고 한다. 이서정(2018)은 대인관계와 대학생활 적응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한 결과 대인관계의 모든 하위요인은 대학생활 적응과 유의한 상관관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유학생들은 낮은 사회문화 환경, 경제 불안, 문화 갈등, 학업 또는 언어 어려움, 차별감 등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기 때문에 유학생들에게는 지지와 도움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다. 조혁수와 전경태(2009)에 의하면 중국인 유학생의 대인관계 중에서 교수와 학우들과의 긍정적 대인관계는 대학생활 적응에 중요한 요인이었다. 김삼화 (2005)의 연구에서는 유학생들의 대인관계의 특징을 세 가지로 나눴다. 첫째, 유학생들은 현지인과의 대인관계의 수준은 낮다. 둘째 유학생들이 현지인과 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적응에 도움이 된다. 셋째 대인관계 문제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경험하는 어려움 중의 가장 힘든 어려움이다.

세 번째 재정적 제약이다. 해외 유학생들이 대학에 적응하는 데 재정적 제약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연구 결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유학생들은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는 데 필요한 자원과 기회에 접근하는 데 제한을 받아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학업 성적이 감소될 수 있다. 이러한 제약은 유학생들이 고립되고 단절감을 느끼게 하며 스트레스와 불안을 초래할 수도 있다. 또한 일부 유학생들은 재정적 제약으로 등록금이나 비용을 지불할 수 없어 대학을 중도 하차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각 대학들은 해외 유학생들이 대학 생활에 적응하고 학업 및 개인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과 지지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 최현실(2018)의 연구 결과는 재정적 제약이 유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과 학업 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재정적 스트레스가 유학생들의 적응 문제를 예측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Misra(2004)는 재정적 제약과 관련하여 유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 심리적 적응, 사회적 적응 및 학업 성취와의 관련성을 연구한 결과, 재정적 제약은 이러한 적응 영역에서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정적 부담이 높은 유학생은 학업 성취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적응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네 번째는 사회적 지지이다. 사회적 지원은 유학생들의 문화 민감성을 긍정적으로 예측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유경(2008) 연구에서 몽골 유학생은 몽골 친구들로부터 받는 지지가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 수준이 높은 반면에 한국인 선·후배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는 적응 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한

국어 능력이 좋은 몽골 학생과 불교를 믿는 학생은 그렇지 않는 몽골 유학생에 비해 사회적 지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세진, 조완성, 김민(2020)에 의하면 친구와 가족으로부터의 사회적 지원이 몽골 유학생의 대문화 역량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학생들이 교직원으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대학생활 적응 능력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했다. 특히 친구들과의 사회적 지원이 대학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가족의 사회적 지원이 대학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유학생들이 대학생활에서 적응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원을 체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3. 상호문화감수성

1. 상호문화감수성의 정의

학자들 사이에서 ‘상호문화 감수성’이라는 용어를 정의하는 것은 구체적이지 않다. Deardorff(2004)가 지적했듯이, 이는 개념의 복잡성과 특정 구성요소를 식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학자들은 종종 그들 각자의 학문적 관점에서 이문화적 역량의 문제에 접근하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다른 용어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고객들과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설명하기 위해 ‘문화적 역량(cultural competence)’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반면, 공학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글로벌 맥락에서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설명하기 위해 ‘글로벌 역량(global competence)’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다양성 분야의 사람들은 문화적 차이를 탐색하고 포괄성을 촉진하는 능력을 설명하기 위해 ‘다문화 역량’(multicultural competence)’과 ‘이문화 성숙(intercultural maturity)’과 같은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문화 적응, 이문화 감수성, 이문화 역량, 이문화 효과, 국제 역량, 글로벌 리더십, 글로벌 시민권 및 이문화 적응 등을 포함하여 이문화 역량과 상호 교환하여 사용되는 많은 다양한 용어들이 있다. 일관된 정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자들 사이의 일반적인 합의는 문화 간 역량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상호작용하고 일하는 능력을 포함한다는 것이다(Deardorff 2004).

상호문화감수성이라는 용어는 문화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저명한 학자인 Milton J. Bennett에 의해 만들어졌다. Bennett(1993)은 문화적 차이를 탐색하는 능력을 개발하면서 개인이 겪는 문화 간 역량의 다른 단계를 설명하는 프레임 워크인 DMIS(Depvelopmental Model of Intercultural Sensitivity)를 만들었다. DMIS는 개인과 조직이 문화 간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문화 간 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에 널리 사용된다. 상호문화감수성의 개념은 문화적 차이에 대한 개인의 인식과 다른 문화적 관점을 인식하고 감상하는 능력에 초점을 맞춘다.

Bhawuk과 Brislin(1992)은 인간이 타문화 집단과 어울려 지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타문화에 대한 흥미, 타문화가 가진 문화적 차이를 인식하는 민감성, 그리고 타문화를 존중하는 행동의 변화라고 주장하면서, 개인이 타문화의 문화적 차이를 인식하는 민감성을 상호문화감수성(Intercultural Sensitivity)이라고 정의한다. 타문화의 문화적 맥락 속에서 자신의 행동을 적절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을 상호문화 역량(intercultural competence)으로 정의했다. 상호문화감수성이란 타문화 집단과의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개인이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만 할 중요한 요소다(원미진, 2021; Chen, 1997).

2. 상호문화감수성과 대학생활 적응

한국에서 유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상호문화감수성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그러나 문화 간의 민감성은 일반적으로 국제 학생들의 대학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상호문화감수성과 대학생활 적응의 관계는 수많은 연구의 주제가 되어 왔으며, 대학의 새로운 학문적, 사회적 환경에 대한 학생들의 전반적인 적응에 문화적 차이가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더 높은 수준의 상호문화감수성을 가진 유학생들은 다른 생각, 믿음, 관습에 더 개방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그들이 다른 문화에서 온 학생들과 더 쉽게 상호작용하고 사회화하도록 돕는다. 그들은 또한 대학 생활의 학업 기대와 요구 사항에 적응할 가능성이 더 높으며 그 결과 더 높은 학업 성취도와 대학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얻을 수 있다. 몽호온드랄(2016)은 상호문화감수성이 한국 유학생들의 사회적 적응에 상당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했다. 다시 말하자면 상호문화감수성이 사회 적응을 통해 학업 적응에 상당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상호문화감수성이 사회적 지지와 대학생활 만족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상호문화감수성이 유학생들이 한국의 대학생활에 적응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엄진숙(2021)의 연구에 의하면 한국의 유학생들의 상호문화감수성과 한국어 능력 간의 관계를 조사했다. 이 연구는 상호문화감수성이 한국어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했고 이는 상호문화감수성을 개발하는 것이 또한 유학생들의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한국의 학업 및 사회 환경에 더 효과적으로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상호문화 감수성은 언어능력, 대인관계능력 및 사회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이로 인해 대학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성격강점

1. 성격강점의 정의

성격강점은 개인의 핵심 가치, 동기 및 행동 패턴을 반영하는 개인의 성격의 긍정적인 측면을 말한다. 성격강점의 예로는 지혜, 용기, 친절, 정직, 인내, 그리고 창의성 등이 있다. 성격의 강점은 일반적으로 상황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대적으로 일관된 안정적인 특성이며 지속적인 특성으로 간주된다. 그것들은 반드시 선천적인 것은 아니지만 개인의 노력과 연습을 통해 발전하고 강화될 수 있다. 자신의 성격적 강점을 확인하고 배양함으로써 전반적인 안녕, 회복력, 그리고 어려움에 대처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성격적 강점의 개념은 좋은 삶에 필수적인 미덕과 개인적 자질을 확인한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와 공자(Confucius)의 것과 같은 고대 철학적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나 과학적으로 연구되고 개발될 수 있는 긍정적인 심리적 특성으로서의 성격의 강점에 대한 현대적인 이해는 2000년대 초에 Martin Seligman과 그의 동료들에 의해 개발되었다. Martin Seligman과 그의 동료들은 성격의 강점을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을 반영하는 긍정적인 특성"이라고 정의했다. 그들은 지혜, 용기, 인간성, 정의, 절제, 그리고 초월의 여섯 가지 광범위한 범주로 구성된 24 개의

성격 강점의 분류를 제안했다(Peterson & Seligman, 2004).

본인의 개인적 상황이나 특성을 따라서 선호되고 발현되는 강점이 다를 수도 있다. McGrath(2013)는 2002년과 2012년 사이에 온라인으로 행동 재고-강도 재고 조사를 완료한 7개 나라 성인 1,063,921명의 샘플을 사용하였다. 이 연구 결과로 가장 일반적으로 인정받는 강점은 공정성, 판단력, 정직성, 호기심, 그리고 친절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반면에 가장 낮게 인정받는 강점은 자기 규제, 겸손, 신중함, 그리고 영성으로 나타났다. Harzer(2014)는 VIA Inventory를 사용하여 성격강점 표현의 성별 차이를 조사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했다. 이 연구에서 45개국에서 온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참여했고 여성들은 친절, 사랑, 그리고 감사와 같은 강점들에서 남성들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는 경향이 있다. 반면, 남성들은 호기심, 창의력, 그리고 용기와 같은 강점들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Proyer, Gander, Wyss 및 Ruch(2011)는 VIA Inventory를 사용하여 성격강점 표현의 연령 차이를 조사했다. 이 연구는 4개 연령대의 1,600명 이상의 사람들(청소년, 젊은 성인, 중년 성인, 그리고 나이든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나이든 성인은 지혜와 관점과 관련된 강점에서 젊은 성인보다 높은 점수를 받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젊은 성인은 탐구와 실험과 관련된 강점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2. 성격강점과 대학생활 적응

성격강점에 대한 첫 번째 과학적 연구는 2004년 피터슨과 셀리그먼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그들은 행동가치 성격강점과 덕목 분류를 개발했다. VIA 분류 시스템이 개발된 이후, 웰빙, 탄력성, 긍정적 관계와 같은 인간 기능의 다양한 측면에서 성격강점의 역할을 검토하기 위해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예를 들어 유지형, 이주희, 박순희(2018)은 한국 대학에 재학 중인 253명의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한 결과 더 높은 수준의 성격강점, 특히 사회지능이 대학 생활에 더 잘 적응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유찬우(2011)은 한국 대학에 재학 중인 60개국 354명의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한 결과 더 높은 수준의 성격강점을 가진 유학생들이 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 그리고 대학 생활에 전반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적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학업적 적응의 가장 강력한 예측 변

수는 인내, 희망, 감사였으며, 사회적 적응의 가장 강력한 예측 변수는 사회적 지능, 친절, 감사였다. 김주혜(2013)은 한국 대학에 재학 중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특정한 성격의 강점이 학업적 또는 사회적 적응과 긍정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구체적으로, 인내, 감사, 그리고 희망은 학업적 적응과 긍정적으로 관련이 있는 반면에 자기 조절은 사회적 적응과 긍정적으로 관련이 있었다. Park and Kim(2020)은 한국 대학에 재학 중인 53개국 255명의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했다. 이 연구는 성격강점이 높은 수준의 유학생들이 삶의 만족도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를 더 높게 받았으며 이러한 요인들이 성격강점과 대학 생활 적응 사이의 관계를 매개한다는 것이다. 삶의 만족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성격적 강점은 희망, 감사, 친절, 학구열이었다. 이러한 선행 연구를 통해 성격강점이 몽골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한국 대학의 학위과정에 재학 중인 몽골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상호문화감수성과 성격강점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자 한다. 연구 대상은 한국 대학교에 소속된 몽골 외국인 유학생이며, 2023년 9월 20일부터 11월 05일까지 무료 온라인 설문 조사 도구(Google form, Monkey survey 등)을 사용하여 온라인으로 설문조사가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한국에 있는 몽골 유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메일 또는 소셜 미디어(Facebook, Instagram 등) 플랫폼을 통해 설문조사를 완료하도록 초청됐다. 참여인원은 총 120명으로 중남학생 18명(15%), 여학생 102명(85%)이었다. 연구대상자의 연령은 17-25세가 48명(40.2%), 26-30세가 46명(38.3%), 31-35세가 18명(15%), 36-45세가 8명(6.7%)이었다. 연구대상자의 한국 체류기간은 4~5년이 38명(31.7%)으로 가장 많았고, 6개월 미만인 13명(10.8%)으로 가장 적었다. 연구대상자의 구체적인 인구학적 변인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 인	사례수	백분율(%)
성별	남자	18	15
	여자	102	85
연령	17~25세	48	40
	26~30세	46	38.3
	31~35세	18	15
	36~45세	8	6.7
한국 체류기간	6개월 미만	13	10.8
	6개월~1년	22	18.3
	2년~3년	23	19.2
	4년~5년	38	31.7

	6년 이상	24	20.0
유학 형태	어학	17	14.2
	학사	39	32.5
	석사	40	33.3
	박사	24	20.0
	Topik 점수 없음	34	28.3
Topik 점수	3급	20	16.7
	4급	27	22.5
	5급	28	23.3
	6급	11	9.2
학점	2.0 미만	4	3.3
	2.0~2.5	11	9.2
	2.6~3.0	21	17.5
	3.1~3.5	39	32.5
	3.6~4.0	23	19.2
	4.0 이상	22	18.3

2. 측정도구

1. 상호문화 감수성 척도

해당 연구에서는 Chen & Starosta(2000)가 개발한 24개 항목의 상호문화감수성 척도(Intercultural Sensitivity Scale, ISS)를 몽골어로 번역하고 사용하였다. 이를 위하여 영어와 몽골어에 능통한 사람에게 영어된 척도를 몽골어로 번역토록 하였으며, 몽골어를 영어로 재번역하는 과정을 통해 몽골어 번역 문항들을 완성하였다. Chen과 Starosta(2000)는 이 척도가 높은 신뢰도(Cronbach's $\alpha=.86$)를 가진다고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상호문화 감수성 척도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은 .86이다. 이 설문지는 리커트 5점 척도(매우 그렇다= 5, 그렇다= 4, 보통이다= 3, 그렇지 않다= 2, 매우 그렇지 않다= 1)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4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각의 하위요인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표 2> 상호문화 감수성의 하위요인

하위요인	내용	문항 번호
상호작용 참여도	개인이 다른 문화 출신 사람들과 상호 작용하기를 원하는 의지와 동기를 측정한다. 다른 문화 출신 사람들과 사회적 상호 작용을 찾고 참여하는 정도를 평가한다.	1-7
문화차이 존중도	다른 문화의 관행, 신념 및 가치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의지를 측정한다. 다른 문화의 차이점을 배우고 받아들이는 데 열려 있는 정도를 평가한다.	8-13
상호작용 자신도	다른 문화 출신 사람들과 상호 작용하는 데 있어서 개인의 자신감과 편안함 수준을 측정한다. 상호 문화적 상호 작용에서 편안하고 자신감을 가지는 정도를 평가한다	14-18
상호작용 향유도	다른 문화 출신 사람들과 상호 작용하는 것에 대한 개인의 즐거움과 긍정적인 태도를 측정한다. 상호 문화적 상호작용을 즐겁고 보상적으로 여기는 정도를 평가한다	19-21
상호작용 주의도	상호 문화적 상호작용에서 문화적 단서와 미묘한 차이점에 주의를 기울이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개인의 능력을 측정합니다. 의사소통 스타일과 행동의 문화적 차이점을 인식하고 적용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22-24
신뢰도 계수	.86	24

2. 성격강점 척도

본 연구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성격강점을 측정하기 위해 Peterson 과 Seligman 이 개발한 성격강점 척도(Values in Action Inventory of Strengths-VIA-IS)를 몽골어로 번역하고 사용하였다. 이를 위하여 영어와 몽골어에 능통한 사람에게 영어된 척도를 몽골어로 번역토록 하였으며, 몽골어를 영어로 재번역하는 과정을 통해 몽골어 번역 문항들을 완성하였다. 이 척도는 총 48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성격강점을 가진 것으로 해석된다. Seligman(2004)에 따르면 VIA-IS 의 신뢰도와 타당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 되고 있고, 본 척도의 전체문항에 대한 내척 합치도(Cronbach's α) 는 .70이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성격강점 척도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은 .56이다.

<표 3> 성격강점 하위요인

하위요인	내용	문항번호
지혜	이 덕목에는 창의성, 호기심, 열린 마음, 비판적이고 반성적으로 사고하는 능력과 같은 인지적 강점이 포함됩니다. 또한 감성 지능과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사용하여 건전한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 능력을 포함합니다.	1-10
용기	이 미덕은 용기, 끈기, 정직 및 무결성과 같은 강점을 포함합니다. 그것은 옳은 일을 하고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도전에 직면하고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11-18
인간성	이 덕목에는 친절, 연민, 공감, 다른 사람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과 같은 대인관계와 관련된 강점이 포함됩니다.	19-24
정의	이 미덕은 공정성, 사회적 책임 및 시민권에 대한 헌신을 포함합니다. 여기에는 리더십, 팀워크, 타인의 복지에 대한 관심과 같은 강점이 포함됩니다.	25-30
절제	이 미덕에는 용서, 겸손, 신중함, 충동과 감정을 관리하는 능력과 같은 자기 통제 및 자	31-38

	기 규제와 관련된 강점이 포함됩니다.	
초월	이 미덕은 영성, 감사, 아름다움에 대한 감상,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는 능력과 같이 개인이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와 연결되도록 돕는 강점을 포함합니다.	39-48
신뢰도 계수	.56	48

3. 대학생활 적응 척도

대학생활 적응 척도(Student Adjustment to College Questionnaire: SACQ)는 Baker와 Siryk(1984)이 개발한 척도를 몽골어로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이를 위하여 영어와 몽골어에 능통한 사람에게 영어된 척도를 몽골어로 번역토록 하였으며, 몽골어를 영어로 재번역하는 과정을 통해 몽골어 번역 문항들을 완성하였다. 이 척도는 학업적응, 사회적응, 개인-정서적응, 대학환경적응의 4가지 하위요인과 63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학업적응척도는 24개 문항이며, 대학생들이 대학 내에서 학업과 관련된 생활에 적응하는 수준을 측정하는 것이다. 사회적응 척도는 18개 문항이며 대학생들이 대학 내에서 대인관계나 과외활동과 같은 생활에 적응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개인-정서적응 척도는 15개 문항이며 대학생들이 일반적으로 겪는 심리적 스트레스 및 신체화 장애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대학환경적응 척도는 10개 문항이며 대학생들이 자신이 다니고 있는 대학에 대한 전반적인 애착이나 호감의 정도로서 대학과 학생간의 유대감 정도를 측정한다. 각 문항에 대한 측정 방식은 ‘매우 그렇다’에서 ‘매우 그렇지 않다’까지 자기보고식형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대학생활적응 척도의 Cronbach's α 값은 .75이다.

3. 분석방법

제한 몽골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후 수집된 데이터는 SPSS 26.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주요 변인들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하였다. 둘째, 신뢰도 분석(Cronbach's α)을 실시하여 각 척도별 신뢰도 수준을 파악하였다. 셋째, 상호문화감수성과 성격강점이 대학생활적응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주요 변인의 차이점을 검증하기 위하여 독립 표본 t 검증 및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고 평균 크기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Scheffe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상호문화감수성과 성격강점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정의하기 위해 다중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치

본 연구에서 측정한 상호문화감수성, 성격강점,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기술통계치는 다음 표 4와 같다. 한국에 있는 몽골 유학생들의 상호문화감수성 평균은 83.02(SD=13.54)로 나타났으며, 가장 높은 평균은 상호작용 참여도 25.22(SD=13.54)으로 나타났고, 상호작용 향유도가 9.25(SD=4.66)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성격강점은 153.50(SD=10.86)로 나타났으며, 지혜가 30.35(SD=3.18)로 가장 높게 나타났 반면에 정의는 19.68(SD=2.31)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활적응은 전체적으로 195.76(SD=19.21)로 나타났으며, 학업적응이 80.2(SD=8.4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학환경적응이 27.36(SD=3.65)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측정변인의 정규 분포성의 가정을 확인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확인한 결과 왜도는 -.23~.82로 나타났고, 첨도는 -1.26~2.82로 절대값 2와 7을 넘지 않았으므로 정상분포를 이룬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치

	M	SD	왜도		첨도	
			M	SD	M	SD
상호문화감수성	83.02	13.54	.31	.22	-.05	.44
상호작용 참여도	25.22	3.62	-.23	.22	-.43	.44
문화차이 존중도	20.94	5.42	.82	.22	-1.26	.44
상호작용 자신도	16.96	3.99	-.06	.22	.02	.44
상호작용 향유도	9.25	4.66	-.06	.22	-1.62	.44
상호작용 주의도	10.66	2.37	-.04	.22	-.04	.44
성격강점	153.50	10.86	.24	.22	.15	.44
지혜	30.35	3.18	.23	.22	.30	.44
용기	26.80	3.57	-.21	.22	.31	.44
인간성	22.62	3.10	-.81	.22	1.99	.44
정의	19.68	2.31	.31	.22	-.13	.44
절제	23.21	3.65	.81	.22	2.82	.44
초월	30.82	3.38	.79	.22	1.10	.44
대학생활적응	195.76	19.21	.05	.22	.45	.44
학업적응	80.20	8.46	.12	.22	.47	.44
사회적응	40.90	7.31	-.2	.22	-.34	.44

개인-정서적응	47.28	11.12	.24	.22	-.07	44
대학환경적응	27.36	3.65	.58	.22	.29	44

2. 상관분석 결과

몽골 유학생의 상호문화감수성, 성격강점, 대학생활적응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Pearson의 상관계수를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5, 표 6과 같다. 상호문화감수성은 대학생활적응 전체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r=.212, p<0.05$)을 보였다. 상호문화감수성과 대학생활적응의 하위요인들 간의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호문화 참여도는 학업적응($r=.19, p<0.05$), 사회적응($r=.30, p<0.01$), 대학 환경적응($r=.23, p<0.05$), 대학생활적응($r=.19, p<0.05$)을 보였으며, 상호문화작용 주의도는 학업적응($r=.28, p<0.01$), 사회적응($r=.27, p<0.01$)의 순으로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업적응은 상호작용 자신도($r=.26, p<0.01$), 상호문화감수성($r=.26, p<0.01$)의 순으로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 상호문화감수성과 대학생활적응 간의 상관 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 상호작용 참여도	1										
2. 문화차이 존중도	.34	1									
3. 상호작용 자신도	.53**	.38**	1								
4. 상호작용 향유도	-.17	.86**	.26**	1							
5. 상호작용 주의도	.46	.07	.49**	-.05	1						
6. 상호문화 감수성	.46**	.82	.76**	.71**	.45**	1					
7. 학업적응	.19	.01	.12	.05	.28	.16	1				
8. 사회적응	.30	.10	.26	.05	.27	.26	.29	1			
9. 개인-정서적응	-.09	.15	-.06	.18	-.08	.07	.20	-.05	1		
10. 대학환경적응	.23*	-.11	.14	-.17	.18	.03	.15	.11	.34**	1	
11. 대학생활적응	.19*	.11	.14	.11	.22	.21	.70**	.50	.71**	.50**	1

* $p<.05$, ** $p<.01$

다음으로 성격강점은 대학생활적응 전체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r=30^{**}$, $p<0.01$)을 보였다. 성격강점과 대학생활적응의 하위요인들 간의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업적응은 지혜($r=19^*$, $p<0.05$), 용기($r=20^*$, $p<0.05$), 인간성($r=20^*$, $p<0.05$), 성격강점($r=26^*$, $p<0.01$)로 정적 상관을 보였다. 개인정서적응은 지혜($r=27^{**}$, $p<0.01$), 용기($r=22^*$, $p<0.05$), 성격강점 전체($r=19^*$, $p<0.05$)와 정적 상관으로 나타났다. 대학환경적응은 지혜($r=21^*$, $p<0.05$), 인간성($r=19^*$, $p<0.05$)와 정적 상관을 보였다.

<표 6> 성격강점과 대학생활적응 간의 상관 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지혜	1											
2. 용기	.23*	1										
3. 인간성	.09	.42**	1									
4. 정의	.20*	.12	.13	1								
5. 절제	.18*	.19*	.15	.05	1							
6. 초월	.18*	.21*	.11	.04	.30**	1						
7. 성격강점	.56**	.67**	.56**	.38**	.60**	.57**	1					
8. 학업적응	.19*	.20*	.20*	-.03	.15	.12	.26**	1				
9. 사회적응	.03	.03	.07	.02	.01	.10	.07	.29**	1			
10. 개인-정서적응	.27**	.22*	.08	-.10	.06	.08	.19*	.20*	-.05	1		
11. 대학환경적응	.21*	.10	.19*	.03	.13	.14	.24**	.15	.11	.34**	1	
12. 대학생활적응	.29**	.24**	.20*	-.06	.13	.16	.30**	.69**	.50**	.71**	.50**	1

* $p<.05$, ** $p<.01$

3. 집단 간 차이

1. 성별에 따른 차이

성별에 따른 몽골 유학생의 상호문화감수성, 성격강점, 대학생활적응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 표본 t분석(Indepented-samples T-test)을 실시하였다.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성별에 따라 대학생활 적응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7>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의 차이

변인	남학생(N=18) M(SD)	여학생 (N=102) M(SD)	<i>t</i>
상호문화감수성	83(11.47)	83.02(13.92)	-.01
성격강점	154.11(11.86)	153.40(10.74)	.25
대학생활적응	192.27(17.61)	196.27(19.52)	-.74

2. 한국 체류 기간에 따른 차이

한국 체류 기간에 따른 몽골 유학생의 상호문화감수성, 성격강점, 대학생활적응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One-way ANOVA와 Scheffe 검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8과 같다. 대학생활적응과 성격강점이 경우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문화 감수성이 체류 기간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Scheffe를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가 없었다.

<표 8> 체류 기간에 따른 주요 변인의 차이

연구변인	체류 기간	<i>N</i>	<i>M</i>	<i>SD</i>	<i>F</i>
상호문화감수성	6개월 미만	13	78.00	10.96	.621
	6개월 ~ 1년	22	84.72	15.86	
	2년 ~ 3년	23	84.56	13.28	
	4년 ~ 5년	38	82.52	12.40	
	6년 이상	24	83.50	14.84	
	합계	120	83.02	13.54	
성격강점	6개월 미만	13	157.61	14.22	2.99*
	6개월 ~ 1년	22	155.04	11.63	
	2년 ~ 3년	23	151.91	8.75	
	3년 ~ 5년	38	149.57	10.29	
	6년 이상	24	157.62	8.99	
	합계	120	153.50	10.86	

대학생활적응	6 개월 미만	13	204.15	20.61	3.95**
	6개월 ~ 1년	22	205.90	16.63	
	2년 ~ 3년	23	196.47	17.37	
	3년 ~ 5년	38	191.42	20.57	
	6년 이상	24	188.12	15.34	
	합계	120	195.76	19.21	

* $p < .05$, ** $p < .01$

3. 유학 형태에 따른 차이

유학 형태에 따른 몽골 유학생의 상호문화감수성, 성격강점, 대학생활적응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One-way ANOVA와 Scheffe 검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9와 같다. 성격강점과 대학생활적응이 경우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였지만 상호문화감수성에 유학 형태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Scheffe를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9> 유학 형태에 따른 주요 변인의 차이

연구변인	유학 형태	N	M	SD	F
상호문화감수성	언어학	5	77.80	1.30	.76
	학사	25	69.64	7.67	
	석사	22	71.90	7.06	
	박사	10	72.40	5.83	
	합계	62	71.54	7.09	
성격강점	언어학	5	156.80	6.18	2.95*
	학사	25	149.60	11.19	
	석사	22	155.36	12.46	
	박사	10	153.30	7.70	
	합계	62	152.82	11.04	
대학생활적응	언어학	5	209.80	11.51	3.65*
	학사	25	191.48	23.59	
	석사	22	193.00	17.21	
	박사	10	185.30	14.06	
	합계	62	192.50	19.81	

* $p < .05$

4. 한국어 능력시험 점수에 따른 차이

한국어능력시험 점수에 따른 몽골 유학생의 상호문화감수성, 성격강점, 대학생활 적응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One-way ANOVA/ Scheffe 검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10과 같다. 상호문화감수성 경우에는 차이가 가장 많이 나타났고 성격강점과 대학생활적응에 한국어능력시험 점수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분석(Scheffe)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10> 한국어능력시험 점수에 따른 주요 변인의 차이

연구변인	한국어능력 시험 점수	<i>N</i>	<i>M</i>	<i>SD</i>	<i>F</i>
상호문화감수성	없음	34	80.08	12.55	4.14**
	3급	20	75.85	12.16	
	4급	27	86.29	11.76	
	5급	28	84.71	13.53	
	6급	11	92.81	15.88	
	합계	120	83.02	13.54	
성격강점	없음	34	153.14	12.19	.42
	3급	20	152.90	10.72	
	4급	27	155.85	10.50	
	5급	28	152.75	10.78	
	6급	11	151.90	8.70	
	합계	120	153.50	10.86	
대학생활적응	없음	34	200.26	18.86	1.41
	3급	20	198.60	20.53	
	4급	27	190.62	20.95	
	5급	28	195.85	17.86	
	6급	11	189.09	14.45	
	합계	120	195.76	19.21	

** $p < .01$

5. 학점에 따른 차이

학점에 따른 몽골 유학생의 상호문화감수성, 성격강점, 대학생활적응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One-way ANOVA와 Scheffe 검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11과 같다. 상호문화감수성, 성격강점은 학점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활적응 경우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사후분석(Scheffe)를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11> 학점에 따른 주요 변인의 차이

연구변인	학점	<i>N</i>	<i>M</i>	<i>SD</i>	<i>F</i>
상호문화감수성	2.0 미만	4	66.75	13.88	2.43*
	2.0 ~ 2.5	11	80.18	12.66	
	2.6 ~ 3.0	21	80.95	15.59	
	3.1 ~ 3.5	39	82.20	11.93	
	3.6 ~ 4.0	23	84.86	11.01	
	4.0이상	22	88.90	14.80	
	합계	120	83.02	13.54	
성격강점	2.0 미만	4	139.25	2.21	2.33*
	2.0 ~ 2.5	11	150.09	8.67	
	2.6 ~ 3.0	21	154.57	13.29	
	3.1 ~ 3.5	39	153.30	12.08	
	3.6 ~ 4.0	23	157.30	7.65	
	4.0 이상	22	153.18	8.78	
	합계	120	153.50	10.86	
대학생활적응	2.0 미만	4	179.25	21.31	2.01
	2.0 ~ 2.5	11	200.18	23.14	
	2.6 ~ 3.0	21	202.76	21.97	
	3.1 ~ 3.5	39	192.64	17.78	
	3.6 ~ 4.0	23	199.82	14.73	
	4.0 이상	22	191.18	18.54	
	합계	120	195.76	19.21	

* $p < .05$

4. 상호문화감수성과 성격강점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의 차이

상호문화감수성과 성격강점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학생활적응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12와 같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R 값은 .35로 독립변수(상호문화 감수성, 성격 강점)와 종속변수(대학 생활 적응) 사이에 적당한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2 값 .121은 대학 적응의 분산 중 약 12.1%가 독립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F 통계량은 8.02, 유의 수준($p < 0.005$)로 나타나 회귀 모델 유의하다는 것을 보였다. 상호문화감수성이 대학 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준화된 계수(β)는 0.18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 감수성이 높은 학생들이 대학 생활 요구에 더 잘 적응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특히 표준화된 계수(β) 0.28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으로 성격 강점은 대학 적응에 더욱 강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상호문화감수성보다 성격강점이 몽골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며, 몽골 유학생의 적응 과정에서 개인적 성격 특성이 더 중요함을 의미한다.

<표 12>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B	SE	β	t	P	F	R
(상수)	99.61	24.78		4.03	.000		
상호문화감수성	.25	.12	.18	2.03	.045	8.02	.35
성격강점	.49	.15	.28	3.17	.002		
종속 변수	대학생활적응						

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상호문화감수성과 성격 강점이 몽골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에 있는 47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120명의 몽골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각 변인들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상호문화감수성과 성격강점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일반적 특성에 따라 몽골유학생의 주요 변인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 한국 체류 기간, 유학 형태, 한국어능력시험, 학점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상호문화 감수성 수준을 분석한 결과, 상호문화 감수성 점수는 평균 80.30(SD=13.54)으로 나타났다. 하위 요인별로 살펴보면, 상호작용 참여도 25.94점, 문화차이 존중도 20.94점, 상호작용 자신도 16.96점, 상호작용 주의도 10.66점, 상호작용 향유도 9.25 점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연구 대상자인 몽골 유학생의 다른 문화 출신 사람들과 상호작용하기를 원하는 의지와 동기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성격강점 수준을 분석한 결과, 성격강점의 평균 점수는 153.50(SD=10.86)으로 나타났다. 하위 요인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초월 30.82점, 지혜 30.35점, 용기 26.80점, 절제 23.21점, 인간성 22.62점, 정의 19.68점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연구대상자의 대학생활 적응 수준을 분석한 결과, 대학생활 적응 수준의 평균 점수는 195.76(SD=19.21)으로 나타났다. 하위 요인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업적응 80.20점, 개인 정서 적응 47.28점, 사회 적응 40.90점, 대학환경적응 27.36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몽골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수준 중에서 학업 적응이 가장 높으며, 대학환경 적응이 다소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상호문화 감수성 수준을 분석한 결과, 성별, 체류 기간 및 유학 형태에 따른 주요 변인들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어능력시험 점수와 학점은 상호문화 감수성의 요인 중에서 상호작용 참여도와 문화차이 존중도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호작용 향유도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상호작용 참여도와 문화차이 존중도가 높아질수록 언어적, 학습적 능력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격 강점 수준을 분석한 결과, 성별, 한국어능력시험 점수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반면에 체류 기간, 학점, 유학 형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외국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몽골 유학생들은 여러 문제를 직면하면서 유학생 개인의 강점이 더욱 발달하게 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지혜, 용기, 초월성 등 성격 강점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외국에서 생활하면서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기준을 접할수록 유학생의 인지적 강점, 문제에 대한 용기 있는 접근과 목표 실현 능력이 동시에 발달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여섯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 수준을 분석한 결과, 성별, 한국어능력시험 점수 및 학점에 따라서는 주요 변인 간에 차이가 없었던 반면에 체류 기간, 유학 형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한국 체류 기간이 6개월에서 1년 미만인 학생과, 유학 형태 중 언어학 학생들이 대학생활적응 수준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학 형태의 학생들은 아직 새로운 환경이 주는 도전에 직면하지 않았고, 공부하는 과목들이 어렵지 않으며, 문화적응 허니문 기간이 계속되면서 학업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비교적 안정된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적응도와 개인-정서적 적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관련되어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1학년이 가장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학년 이후 대학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난 유지형, 이주희, 박순희(2018)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일곱째, 몽골 유학생의 상호문화감수성이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문화감수성과 대학생활적응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유의한 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문화적 차이에 더 잘 적응하고 존중하는 학생들이 유학 과정이 제공하는 다양한 환경에서 더 쉽게 적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상호문화감수성의 하위 요인 중에서 상호작용 참여도, 상호작용 주의도, 상호작용 자신도 모두 대학생활적응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이는 문화 간 상호작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타인의 문화적 관점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러한 상호작용에 대한 자신감을 느끼는 것이 대학생활의 전반적인 긍정적 관계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의미할 수 있다. 즉, 몽골 유학생들은 개방적이고 참여적이며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 자신감을 느낄 경우 대학생활적응을 잘한다고

할 수 있다.

여덟째, 몽골 유학생의 성격강점이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격강점과 대학생활적응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유의한 관계가 나타났으며, 이는 성격강점이 높은 유학생들 대학생활적응을 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성격강점 중에서 지혜, 용기, 인간성은 대학생활적응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지혜는 인지적인 강점에 해당되는 것으로 지혜가 높을수록 성공적으로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용기는 끈기, 정직 및 무결성과 같은 강점을 의미하며 대학 생활에서 도전을 잘 이길 수 있게 해준 것으로 이해된다. 인간성은 다른 사람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대학 환경에서 좋은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결과는 성격강점 덕목이 대학 생활 적응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지혜와 지식의 덕목이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던 유찬우(2011)의 연구와 일치한다.

마지막으로 몽골 유학생의 상호문화감수성과 성격 강점이 대학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상호문화감수성과 성격강점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회귀식은 종속변수인 몽골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의 12.1%는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상호문화감수성과 성격강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몽골유학생의 상호문화감수성과 성격 강점이 좋을수록 대학생활 적응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 감수성이 높은 학생들이 대학 생활 요구에 더 잘 적응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특히 상호문화감수성과 성격강점 중에서 성격 강점은 대학생활 적응에 더욱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몽골 유학생이 대학생활 적응을 성공적으로 하는 데 학업적인 능력 뿐만 아니라 문화에 대한 인식과 개인의 성격강점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혔다. 이런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몽골 학생들은 상호문화작용 참여도와 문화 차이에 대한 존중도는 높지만 상호작용 향유도와 상호작용 주의도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문화적 차이를 올바르게 수용하고 적응하는 능력은 낮은 것을 보인다. 몽골 학생들은 다문화 의사소통 경험 부족과 문화적 차이, 언어 장벽 등으로 인해 상호문화 의사소통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따라서 다른 문화권 학생들과 개방적인 의사소통과 공동 참여가 가

능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은 몽골 학생들의 상호문화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대 학생활 적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대부분 국내 대학에서 진행되는 문화 인식 프로그램은 외국인 학생들을 수동적으로 또는 고객으로만 참여시키는 프로그램으로 효과가 좋지 않다. 대신 학생의 익숙한 곳이나 학교 환경에서 작은 문화 교류 행사나 타문화 학생들과 같이 한 팀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 이런 활동에 통해 학생들 자신의 나라 문화를 소개하고 홍보하며,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인식할 수 있고 다른 나라 출신 학생들과 더 현실적으로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큰 한계점은 대상 표본인 몽골 학생들의 특성을 정의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에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요인을 언급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몽골 학생들의 문화에 대한 감정과 그들의 개인적 측면을 조명하는 것이 중요했지만 이런 측면에서 수행된 몽골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거의 없기 때문에 본 연구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했다. 따라서 몽골인들의 심리와 개인의 특성을 규명하기 위한 차기 심리학 연구는 향후 몽골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초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국경과 문화의 차이와 관계없이 현대 청년들의 소비와 사회문화가 유사해 짐에 따라 전통문화의 차이로 인한 문제가 줄어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전통문화보다는 현대 사회 제도와 시스템의 차이를 고려해서 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교육부 (2023). 2022년 교육기본 통계 결과 발표. 세종: 교육부.
- 김삼화(2005). 다문화적 맥락에서의 대인관계 교육 프로그램 개발- 재한 중국유학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세경 (2018). 외국인 유학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사회정서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학 인간관계의 매개효과 및 체류 기간의 조절 효과. 지역과세계, 42(2), 127-149.
- 김주혜 (2013). 외국인 유학생의 성격강점과 문화적응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몽골교육과학문화부 (2015). 몽골 교육 과학 문화부의 보고서 [Report of Mongolia's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Culture]. <https://www.adb.org/sites/default/files>에서 발췌(2023.10.8).
- 문세진, 조완성, 김민 (2020). 한국유학생학 적응에 대한 지방대학 몽골 유학생의 인식 유형 연구. 주관성 연구, 53, 33-55.
- 몽흐온드랄 (2016). 몽골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대학생학 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엄진숙 (2021). 국내 외국인 대학생의 상호문화 감수성과 문화적응의 관계 연구. 이 중언어학회, 83, 65-98.
- 에르덴척트 바이가리, 김경란, 석동헌. (2023). 몽골 유학생의 자기 결정적 유학 동기와 교우관계에 따른 대학생학 적응. 지역과 사회, 47(1), 49-79.
- 오세경, 김미순, 백보예바 아이굴 (2015).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을 위한 여가 경험의 의미. 여가학연구, 13(4), 79-99.
- 우누루 (2016). 몽골학생들의 한국유학에 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원미진 (2021). 중국인 유학생 상호문화 감수성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지형, 이주희, 박순희 (2018). 외국인 유학생의 성격강점이 대학생학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디지털정책학회논문지, 16(1), 411-520.

- 유찬우 (2011). 성격강점이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및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서정 (2018). 대학생의 자기분화, 대인관계 및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 *교정상담학연구*, 3(2), 63-81.
- 이선영, 나윤주 (2018).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적응 실태 조사. *교양교육연구*, 12(6), 167-193.
- 조혁수, 전경태(2009). 중국인 유학생들의 대학생활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사회과학연구*, 20(3), 193-223.
- 최현실 (2018).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61(1), 71-93.
- 한수정 (2016). 외국인 유학생의 학교생활 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 연구 : 대학원과정 기혼 몽골 유학생을 중심으로.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6(10), 47-62.
- 한유경 (2008). 재한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재한 몽골 유학생을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aker, R. W., & Sirky, B(1984). Measuring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 179~89
- BATKHISHIGBIMEDEKHHGUI (2018). 몽골 유학생의 교우관계와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인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ennett, M. J. (1993). Toward ethnorelativism: A developmental model of intercultural sensitivity. In R. M. Paige (Ed.), *Education for the intercultural experience* (2nd ed., pp. 21-71). Yarmouth, ME: Intercultural Press.
- Bhawuk D. P. S., Brislin Richard (1992) The Measurement of Intercultural Sensitivity Using the Concept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16, 413-436.
- Chen, G. M.(1997). *A Review of the Concept of Intercultural Sensitivity*. Paper presented at the Bienial Convention of the Pacific and Asian Communication Association, Honolulu, HI.
- Chen, G. M., & Starosta, W. J. (2000).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intercultural communication sensitivity scale. *Human Communication*, 3,

1–15.

- Deardorff, D. K. (2004). The Identification and Assessment of Intercultural Competence as a Student Outcome of Internationalization at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Studies in International Education, 10*(3).
- Harzer, C., & Ruch, W. (2014). The Role of Character Strengths for Task Performance, Job Dedication, Interpersonal Facilitation, and Organizational Support. *Human Performance, 27*(3), 183–205.
- McGrath, R. E. (2013). Character strengths in 75 nations: An update.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10*(1), 41–52.
- Misra, R., & Castillo, L. G. (2004). Academic Stress Among College Students : Comparison of American and International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Stress Management, 11*(2), 132–148.
- Peterson, C., & Seligman, M. E. P. (2004). *Character strengths and virtues: A handbook and classific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Peterson, C., & Seligman, M.E. (2004). *Character Strengths and Virtues: A Handbook and Classific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 Proyer, R. T., Gander, F., Wyss, T., & Ruch, W. (2011). The Relation of Character Strengths to Past, Present, and Future Life Satisfaction among German-Speaking Women. *Applied Psychology: Health and Well-Being, 3*(3), 370–384.

부록 1. 인구통계학적 질문지

성별	남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나이	
한국 체류 기간	년 월	대학교	대학교
유학 형태 (학위과정 유학생)	<input type="checkbox"/> 어학연수 <input type="checkbox"/> 학사 <input type="checkbox"/> 석사 <input type="checkbox"/> 박사	학년 및 막기	학년 학기
한국어 수준	<input type="checkbox"/> 전혀 못함 <input type="checkbox"/> 초급 <input type="checkbox"/> 중급 <input type="checkbox"/> 고급	한국어능력시험 (Topik 점수)	<input type="checkbox"/> 없어요 <input type="checkbox"/> 3 급 <input type="checkbox"/> 4 급 <input type="checkbox"/> 5 급 <input type="checkbox"/> 6 급
학점 (GPA)	<input type="checkbox"/> 2.0-2.5 <input type="checkbox"/> 2.6-3.0 <input type="checkbox"/> 3.1-3.5 <input type="checkbox"/> 3.6-4.0 <input type="checkbox"/> 4.0 이상	전공은 무엇입니까?	

부록 2. 대학생활적응 척도 문항

NO	문항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대학 환경에 잘 적응하고 있다. Би сургуулийнхаа орчинд сайн дасан зохьцож байгаа.					
2	최근 나는 긴장감을 느끼거나 신경이 예민해져 있다 СҮҮлийн Үед би тҮгшҮҮртэ й бас уур уцаартай болсон					
3	나는 공부를 밀리지 않고 잘해 나가고 있다 Би хичээлээ маш сайн хийж байгаа					
4	나는 학교에서 충분히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마음껏 친구들을 사귀고 있다. Би сургууль дээрээ олон хҮнтэй танилцаж, нөхөрлөж байгаа					
5	나는 왜 대학에 다니고 있는지, 그리고 대학에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알고 있다 Би суралцаж байгаа шалтгаан болон зорилгоо маш сайн мэдэж байгаа.					
6	나는 대학 공부가 어렵게 느껴진다. Их сургуулийн хичээл надад хэцүү санагддаг					
7	나는 최근에 기분이 매우 우울하고 울적하다 СҮҮлийн Үед би сэтгэлээр					

	унаж, сэтгэл гутрал мэдэрч байна					
8	나는 대학 활동(동문회, 동아리 등)에 잘 참여하고 있다.					
	Би сургуулийнхаа (дугуйлан, эвент) хөтөлбөр Үйл ажиллагаанд идэвхтэй оролцдог.					
9	나는 대학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					
	Би их сургуулийн амьдралд сайн дасан зохьцож байгаа					
10	나는 시험 기간 중에 잘 지내지 못한다.					
	Шалгалтын Үеэр надад маш хэцүү байдаг					
11	나는 최근에 피곤할 때가 많다					
	Би сүүлийн Үед их ядарч байгаа					
12	홀로 선다는 것, 내 자신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것이 쉽지 않다					
	Ганцаараа байж өөрийнхөө төлөө хариуцлага Үүрч байх нь хялбар биш байна.					
13	나는 나의 학업 수준에 만족하고 있다.					
	Би өөрийнхөө сурлагын түвшинд сэтгэл хангалуун байдаг.					
14	나는 교수님과 공적인 만남 이외 사적으로 만나는 일이 있다					
	Би багш нартайгаа албан ёус байдлаар уулзаж байсан тохиолдол байгаа.					
15	나는 이 학교에 다니기로 한 결정에 대해 만족한다.					
	Би сургуульд суралцаж байгаадаа сэтгэл хангалуун байна.					

16	<p>나는 학과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 못하고 있다.</p> <p>Би хичээлээ идэвхтэй хичээнгүйлэн хийж чадахгүй байгаа.</p>				
17	<p>나는 학교에서 친밀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많이 맺고 있다</p> <p>Би сургууль дээрээ олон янзын нийгмийн харилцаанд оролцдог.</p>				
18	<p>나의 학업적 목적과 목표는 뚜렷하게 정해져 있다</p> <p>Би суралцаж байгаа зорилго, зорилтоо бүрэн тодорхойлсон</p>				
19	<p>나는 최근 내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없다.</p> <p>Сүүлийн Үед сэтгэл хөдлөлөө сайн барьж чадахгүй байгаа</p>				
20	<p>나는 사실 해야 하는 공부를 해낼 만큼 머리가 좋지 못하다</p> <p>Хичээлээ хийхэд миний мэдлэг дутмаг санагддаг</p>				
21	<p>집이 그리워서 힘들다</p> <p>Гэрээ санаад хэцүү байдаг</p>				
22	<p>학사 학위를 따는 것은 내게 매우 중요하다.</p> <p>Боловсролын зэрэг авах нь надад маш чухал</p>				
23	<p>최근에 식욕이 좋다.</p> <p>Сүүлийн Үед хоолны дуршил сайн байгаа</p>				
24	<p>나는 최근 공부 시간을 별로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p> <p>Сүүлийн Үед хичээл дээр тийм ч Үр дүнтэй байж чад ахгүй байгаа</p>				
25	<p>나는 수강 과목의 보고서를 작성</p>				

	<p>하는 것이 즐겁다.</p> <p>Хичээлийнхээ бие даалтыг хийх нь надад таалагддаг</p>					
26	<p>나는 최근에 머리가 아플 때가 많다.</p> <p>СҮҮлийн Үед толгой их өвдөж байгаа</p>					
27	<p>나는 최근에 공부하려는 의욕이 별로 생기지 않는다</p> <p>СҮҮлийн Үед суралцах хүсэл, эрмэлзэлгүй байна.</p>					
28	<p>나는 대학에서 할 수 있는 과외 활동에 만족하고 있다.</p> <p>Би сургуулиас зохион байгуулдаг хичээлээс гадуурх Үйл ажиллагаануудад сэтгэл хангалуун байна.</p>					
29	<p>나는 최근에 학교 상담소나 그 외 심리상담 기관을 찾아가 도움을 받아야 할지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p> <p>СҮҮлийн Үед сургуулийн сэтгэл зүйн төв эсвэл сургуулиас гадуурх сэтгэл зүйн төвөөс сэтгэл зүйн зөвөлгөө авах талаар их бодож байна.</p>					
30	<p>나는 최근에 대학교육의 가치에 대해 회의하고 있다</p> <p>СҮҮлийн Үед их сургуулийн боловсролын Үнэ цэнийн талаар эргэлзэх болсон</p>					
31	<p>나는 최근에 체중이 많이 늘었다. (혹은 줄었다.)</p> <p>СҮҮлийн Үед жин их нэмж байгаа</p>					
32	<p>나는 대학에서 들을 수 있는 강</p>					

	<p>의가 많고 다양하다는 데에 만족한다.</p> <p>Судлах боломжтой хичээлийн сэдэв болон тоо олон байгаад би сэтгэл хангалуун байна.</p>				
33	<p>나는 대학에서 사람들과 잘 어울려 지낼 수 있는 사회적 기술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p> <p>Би сургуулийн орчинд хҮмҮ Үстэй харилцаа тогтоох нөхөрлөх чадвартай гэж өөрийгөө бодож байна.</p>				
34	<p>나는 최근에 너무 쉽게 화가 나곤 한다.</p> <p>СҮҮлийн Үед их амархан уур хҮрдэг болсон</p>				
35	<p>나는 최근에 공부하려고 할 때 주의집중이 안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p> <p>СҮҮлийн Үед хичээл хийхэд төвлөрч өгөхгүй хэцүү байгаа</p>				
36	<p>나는 잠을 잘 자지 못한다.</p> <p>СҮҮлийн Үед сайн унтаж чадахгүй байгаа</p>				
37	<p>나는 노력에 비해서 성적이 만족스럽지 못하다.</p> <p>Суралцаж байгаа идэвх, зүтгэлтэй харьцуулахад авч байгаа оноондоо сэтгэл хангалуун бус байгаа</p>				
38	<p>나는 대학 생활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편안하지 못하다.</p> <p>Сургуулийн орчинд олон хҮмүүстэй хамт байх нь тухгүй санагддаг</p>				
39	<p>나는 대학에서 들을 수 있는 강의의 질이나 양에 만족한다.</p>				

	Сургуулийн хичээлийн чанарт сэтгэл хангалуун байдаг.				
40	나는 규칙적으로 강의에 출석한다. Би лекц, хичээлдээ тогтмол суудаг				
41	가끔 내 성적은 너무 쉽게 뒤죽박죽 한다. Заримдаа миний дҮн хэтэрхий амархан өөрчлөгддөг				
42	나는 대학에서의 친목 활동에 충분히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Би өөрийгөө сургуулийн Үйл ажиллагаанд хангалттай сайн оролцож байгаа гэж боддог.				
43	나는 최근에 이성과 잘 어울리지 내지 못하고 있다. СҮҮлийн Үед эсрэг хҮйстэнтэйгээ харилцахад хҮндрэлтэй санагдаж байна.				
44	나는 대학에서 공부하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한 걱정이 많다. Би сургалтын төлбөрт их санаа зовдог				
45	나는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이 즐겁다. Их сургуульд суралцах над ад таалагдаж байгаа.				
46	나는 최근 대학에서 생활하면서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 СҮҮлийн Үед маш их ганцаардаж байна.				
47	나는 과제물을 시작하는 데 힘이 많이 든다. Би даалгавар, бие даалтаа хийж эхлэхдээ маш эрч хҮч				

	тэй байдаг.					
48	<p>나는 이번 학기에 수강하는 과목들에 대해 만족한다.</p> <p>Энэ улиралд сонгон судалж байгаа хичээлүүддээ сэтгэл хангалуун байгаа</p>					
49	<p>나는 최근 건강 상태가 좋다고 느낀다.</p> <p>Миний биеийн эрүүл мэнд маш сайн байгаа</p>					
50	<p>나는 다른 학생들과 스스로 많이 다르다고 느끼는데, 난 그것이 싫다.</p> <p>Би өөрийгөө бусад оюутнуудаас ялгаатай, өөр гэж мэрдэдэг. Би энэ мэдрэмжинд дургүй</p>					
51	<p>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결국 이 대학에 다니는 그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있었던 게 낫다고 생각한다.</p> <p>Бүх зүйлийг эргэцүүлэн болох үед энэ сургуульд суралцаж байснаас зүгээр өөр зүйл хийх нь илүү үрдүнтэй байх юм шиг санагддаг.</p>					
52	<p>내가 흥미를 느끼는 것들을 대부분 대학에서의 내학과 공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p> <p>Миний сонирхдог зүйлсийн ихэнх нь судлаж байгаа хичээлтэй огт холбогддоггүй.</p>					
53	<p>나는 지금 강의를 맡고 있는 교수님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p> <p>Хичээл орж байгаа багш на</p>					

	рт сэтгэл хангалуун байна.					
54	<p>나는 무슨 문제든지 함께 이야기 할 수 있는 좋은 친구나 아는 사람이 대학에 몇 명 있다.</p> <p>Надад ямар ч асуудал, бэрхшээлээ ярилцаж болох сайн найз, итгэдэг хүмүүс сургуульд байдаг.</p>					
55	<p>나는 대학 생활에서 닥치는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p> <p>Хичээл, их сургуулийн стрессийг даван туулахад хэцүү байдаг.</p>					
56	<p>나는 대학에서의 인간관계에 상당히 만족하고 있다.</p> <p>Би сургууль дээрх өөрийн харилцаандаа сэтгэл хангалуун байдаг</p>					
57	<p>나는 대학에서의 내 학업 상황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p> <p>Би суралцаж байгаа нөхцөл, байдалдаа сэтгэл хангалуун байдаг.</p>					
58	<p>나는 대학에 다니기로 한 결정에 대해 만족한다.</p> <p>Би их сургуульд суралцахад шийдсэндээ баярладаг.</p>					
59	<p>나는 다른 대학에 갔더라면 하고 바란다.</p> <p>Би өөр их сургуульд элсэн орсон ч болоосой</p>					
60	<p>나는 학사 학위를 받을 때까지 계속 학교에 다닐 것이다.</p> <p>Магистрийн зэрэг авах хүртэлээ суралцах болно.</p>					
61	<p>최근에 나는 다른 대학으로 옮길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p> <p>Сүүлийн үед өөр их сургуу</p>					

	льд элсэх талаар их бодож байгаа					
62	최근에 나는 대학을 아주 많이 그만둘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Сүүлийн Үед суралцахаа болих талаар их бодож байгаа					
63	나는 휴학을 했다가 나중에 공부를 마칠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Би жилийн чөлөө аваад тэгээд Үргэлжлүүлэн суралцах талаар бодож байна.					

부록 3. 상호문화 감수성 척도

NO	문항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다른 문화권 출신의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즐긴다. БИ өөр улсын хүмүүстэй харилцах дуртай					
2	나는 문화적으로 다른 상대방에 대한 인상을 형성하기 전에 기다리는 편이다 Би өөрийн соёлын хувьд өөр хүнийг дүгнэхдээ хүлээцтэй ханддаг					
3	나는 다른 문화권 출신의 사람들에게 열린 마음을 갖고 있다 Би соёлын хувьд ялгаатай хүмүүстэй харилцахдаа нээлттэй ханддаг.					
4	나는 상호작용할 때 문화적으로 다른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준다. Би соёлын ялгаатай хүнтэй харилцахдаа эерэгээр ханддаг.					
5	나는 문화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상대해야 할 상황을 피한다. Би соёлын хувьд ялгаатай хүмүүстэй харилцахаас зайлс хийдэг					
6	나는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문화적으로 다른 상대방에게 나의 이해 정도를 종종 알려 준다. Би яриагаараа болон Үйл хөдлөлөөрөө харилцагчийнх					

	аа соёлын талаарх өөрийн ойлголтыг байнга илэрхийлдэг					
7	<p>나는 문화적으로 다른 상대방과 나 자신과의 차이를 통해서 즐거움을 느낀다.</p> <p>Би соёлын хувьд ялгаатай хүнтэй харилцахдаа соёлын хувьд өөр өөрийн гэсэн ялгаатай байгаадаа баяртай байдаг.</p>					
8	<p>나는 다른 문화권 출신의 사람들은 속이 좁다고 생각한다.</p> <p>Би өөр соёлын Үндэстний хүмүүсийг хүн чанар муутай гэж боддог.</p>					
9	<p>나는 다른 문화권 출신의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p> <p>Надад соёлын хувьд ялгаатай хүнтэй хамт байх нь таалагддаггүй</p>					
10	<p>나는 다른 문화권 출신 사람들의 가치관을 존중한다.</p> <p>Би соёлын хувьд ялгаатай хүний Үнэт зүйлийг хүндэтгэж харьцдаг</p>					
11	<p>나는 다른 문화권 출신의 사람들의 행동 양식을 존중한다.</p> <p>Би соёлын хувьд ялгаатай хүмүүсийн Үйл хөдлөл, хандлагыг зэргийг хүндэтгэдэг</p>					
12	<p>나는 다른 문화권 출신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한다.</p> <p>Би соёлын хувьд ялгаатай хүмүүсийн Үзэл бодлыг хү</p>					

	лээн авч, сонсохгүй байхыг эрмэлздэг.					
13	나는 우리 문화가 다른 나라의 문화보다 더 낫다고 생각한다. Би өөрийн соёлыг бусад орны соёлоос илүү гэж боддог.					
14	나는 다른 문화권 출신의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때 쉽게 화를 낸다. Би соёлын хувьд ялгаатай хүмүүстэй харилцахад миний уур амархан хүрдэг					
15	나는 다른 문화권 출신의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종종 좌절감을 느낀다. Би соёлын хувьд ялгаатай хүнтэй харилцах үедээ өөртөө итгэлгүй болох мэдрэмж авдаг.					
16	나는 종종 다른 문화권 출신의 사람들과 상호작용 하는 것이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Соёлын хувьд ялгаатай хүмүүстэй харилцах нь Үр дүнгүй, хэрэгцээгүй гэж боддог					
17	나는 다른 문화권 출신의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때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다. Би соёлын хувьд ялгаатай хүмүүстэй харилцахдаа өөртөө итгэлтэй байдаг.					
18	나는 다른 문화권 출신의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것이 몹시 어렵다고 생각한다. Надад соёлын хувьд ялгаатай хүмүүсийн өмнө юм ярь					

	их нь их хэцүү юм шиг сан агддаг				
19	<p>나는 다른 문화권 출신의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때 무엇을 말할지 항상 알고 있다.</p> <p>Би соёлын хувьд ялгаатай хүмүүстэй харилцахдаа юуны тухай ярилцахаа сайн мэддэг.</p>				
20	<p>나는 다른 문화권 출신의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때 내가 원하는 만큼 사교적으로 될 수 있다.</p> <p>Би соёлын хувьд ялгаатай хүмүүстэй хүссэнээрээ нөхөрсөг харилцаж чаддаг.</p>				
21	<p>나는 다른 문화권 출신의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때 자신감을 느낀다.</p> <p>Би соёлын хувьд ялгаатай хүмүүстэй харилцах Үед өөртөө итгэх итгэл төрдөг.</p>				
22	<p>나는 다른 문화권 출신의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때 매우 관찰을 잘한다.</p> <p>Би соёлын хувьд ялгаатай хүмүүстэй харилцахдаа маш хянуур, ажигч байдаг</p>				
23	<p>나는 다른 문화권 출신의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때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한다.</p> <p>Би соёлын хувьд ялгаатай хүмүүстэй харилцахдаа аль болох их мэдээлэл олж авахыг эрмэлздэг.</p>				
24	<p>나는 상호작용할 때 문화적으로 다른 상대방의 미묘한 의미에 대해서 민감하다.</p> <p>Би соёлын хувьд ялгаатай</p>				

хҮмҮҮстэй харилцах Үедээ харилцагчийнхаа ярианы д алд, тойруу утгыг сайн ойлгодог					
--	--	--	--	--	--

부록 4. 성격강점 척도

NO	문항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강한 상대와 맞서는 일이 종종 있다. Би хүчтэй эсэргүүцэлтэй б айнга тулгардаг					
2	고통이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 문에 내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Бэрхшээл тулгарахад би ир ээдҮйд итгэх итгэлээ алддаг					
3	나는 한번 시작한 일은 반드시 끝을 맺는다. Би нэг эхлүүлсэн ажлаа за авал дуусгадаг.					
4	나는 일이나 공부를 하다가 종종 옆길로 샌다. Би ажил юм уу хичээл хий ж байхдаа өөр зҮйлд амарх ан сатаардаг					
5	나는 언제나 약속을 지킨다. Би хэзээд амлалтаа биелүү лдэг					
6	친구들이 나에게 ‘너는 참 솔직 하다’라고 말한 적은 없다. Найзууд маань надад “Чи Ү нэнч хүн” гэж хэлж байсан удаа байхгүй.					
7	나는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열정 적으로 달려든다. Би хийж байгаа бүх зҮйлдэ э сэтгэлээсээ ханддаг					
8	나는 맥이 빠진 채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는 적이 많다.					

	Би цагаа Үр дҮнгҮй өнгөрө өх Үе олон байдаг				
9	на는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마음 에 담아두지 않는다 Би болоод өнгөрсөн хэргий н талаар дахин бодож зови ндоггүй				
10	나는 당하고는 못산다. 꼭 내가 당한 만큼 갚아준다. Би хариугаа авах гэж Үргэ лж эрмэлздэг				
11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 칭찬하기 시 작하면 나는 화제를 바꾼다. ХҮмҮҮс намайг магтаж эхл эхэд би ярианы сэдвийг өө рчилдөг				
12	나는 나 자신의 성취나 성공에 대해 종종 말하곤 한다. Би заримдаа өөрийн амжил таараа сайрхдаг				
13	나는 신체적으로 위험한 활동은 피하는 편이다 Биед гэмтэл учруулж болзо шгүй зүйл хийхээс татгалз даг				
14	나는 때때로 친구 사이나 연인 관계에서 후회할 만한 일을 한 다. Би нөхөрлөл болон Үерхэли йн харилцаандаа харамсмаа р Үйлдэл заримдаа хийдэг				
15	나는 나의 기분이나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다 Би сэтгэл хөдлөлөө сайн б арьж, удирддаг.				
16	나는 다이어트나 금연을 시도한 다 해도 그것을 끝까지 지켜나가 기가 힘들다				

	Би хоолны дэглэм тууштай барьж чаддаггүй				
17	나는 이 세상에 대해 늘 호기심을 갖는다 Би ертөнцийн талаар Үргэлж сонирхдог				
18	나는 쉽게 실증을 내는 편이다. Би амархан уйдчихдаг				
19	나는 새로운 것을 배울 때면 매우 신나고 기분이 좋다. Би шинэ зүйл сурахдаа Үргэлж баяртай байдаг				
20	나는 미술관이나 특별 강연 등 무언가 배울 수 있는 곳을 굳이 찾아다니지는 않는다. Музей, лекц гэх мэт ямар нэгэн зүйл сургахад чиглэсэн Үйл ажиллагаанд оролцох гэж төлөвлөгөөгөө би өөрчилдөггүй.				
21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든 나는 마음만 먹으면 상당히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 Ямар ч сэдэв байсан анхаарал татвал би маш оновчтой сэтгэж бодож чаддаг				
22	나는 때로 성급한 판단을 내리는 편이다 Би заримдаа яаруу, хурдан дүгнэлт гаргадаг				
23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내는 것을 좋아한다. Би аливаа зүйлийг хийх өөр, цоо шинэ аргыг бодож олох дуртай				
24	대부분의 내 친구들은 나보다 더 상상력이 뛰어나다				

	Ихэнх найзууд маань надаас илүү уран сэтгэмжтэй байдаг.				
25	나는 언제나 사물의 다양한 측면과 큰 그림을 볼 수 있다 Би аливаа зүйлийг олон талаас нь харч өргөн хүрээнд хардаг				
26	나에게 고민을 상담해오거나 내 충고를 듣고자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Хүмүүс надаас зөвөлгөө авах гэж ирдэггүй.				
27	나는 어떤 그룹의 일원으로 일할 때 최선을 다해 일한다. Би багаар ажиллахдаа бүх зүйлийг хамгийн сайнаараа хийдэг.				
28	나는 내가 속한 그룹의 이익을 위해 내 개인적인 이익을 희생하는 것을 꺼린다. Би багийнхаа сайн сайхны төлөө өөрийн ашиг сонирхлоо хойш тавьдаггүй				
29	나는 신분이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균등하게 대한다. Би бүх хүмүүст ижил тэгш ханддаг				
30	만약 내가 누군가를 싫어한다면, 나는 그 사람을 공정하게 대하기가 힘들다 Хэрвээ би хэн нэгэнд дургүй бол тэр хүнд шудрага, тэгш хандахад надад хэцүү байдаг.				
31	나는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를 하거나 다그치지 않고 서로 그들이				

	함께 어떤 일을 하도록 잘 이끌 수 있다					
	Миний нэг давуу тал бол б и хҮмҮҮст хамтран ажиллахад нь туслаж чаддаг. Хэдий тэд хоорондоо зөрчилтэй байсан ч					
32	여러 사람이 함께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앞장서서 일을 추진하는 것은 왠지 어색하다.					
	Багь бҮлэг ахалж, манлайлах нь надад эвгҮй санагддаг					
33	내 인생에는 나의 삶과 행복에 대해 자기 자신의 삶과 행복만큼이나 생각해주고 배려해주는 사람들이 있다.					
	Миний сэтгэл зҮй болон сайн сайхан байдалд өөрийн юм шиг санаа тавьдаг хҮмҮҮс олон.					
34	나는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데 불편함을 느낀다.					
	Бусад хҮмҮҮсээс хайр, хҮндэтгэл хҮлээх надад тухгҮй хэцүү санагддаг.					
35	나는 지난 한 달 반 동안 주변에 있는 사람을 자발적으로 도와준 적이 있다.					
	Би сҮҮлийн нэг сарын хагасын туршид хөршдөө сайн дураар тусалсан.					
36	나는 다른 사람이 얻은 행운에 대해, 마치 내가 얻은 것처럼 진심으로 기뻐해 준 적이 거의 없다.					

	Би бусдад сайхан зҮйл тох иолдоход надад ч бас тохиолдсон юм шиг догдолж чин сэтгэлээсээ баяр хүргэж байгаагүй.					
37	나는 어떤 자리에서든 어떤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다 Би ямар ч орчин нөхцөлд дасан зохьцож чаддаг					
38	나는 주변 사람들의 기분이나 감정을 눈치 빠르게 파악해내는 능력이 부족하다. Надад бусад хүмүүсийн мэдрэмжийг ойлгох чадвар дутмаг					
39	나는 지난 한 달간 훌륭한 음악이나 미술, 영화, 공연 또는 뛰어난 스포츠나 과학적 발견 등에 매료되거나 감탄한 적이 있다. Би сүүлийн нэг сарын хугацаанд хөгжим, кино, уран зураг урлагын зүйлд сэтгэл татагдсан тохиолдол бий.					
40	나는 지난 일 년 동안 아름다운 어떤 것을 만들어낸 적이 없다. Сүүлийн нэг жилийн хугацаанд ямар нэг үзэсгэлэнтэй сайхан зүйл бүтээгээгүй.					
41	나는 작은 일에도 늘 감사한다. Би жижиг зүйлд ч баярлаж, талархдаг					
42	나는 내가 얼마나 복 받은 사람인지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다. Би хэр азтай, сайн хүн бол					

	ох талаараа бодож байсан Үе бараг л байхгүй				
43	насан өөр өөр өдөр хангалуун гэдэгтэй хүнд талыг хардаг.				
	насан өөр өөр өдөр хангалуун гэдэгтэй хүнд талыг хардаг.				
44	насан өөр өөр өдөр хангалуун гэдэгтэй хүнд талыг хардаг.				
	насан өөр өөр өдөр хангалуун гэдэгтэй хүнд талыг хардаг.				
45	насан өөр өөр өдөр хангалуун гэдэгтэй хүнд талыг хардаг.				
	насан өөр өөр өдөр хангалуун гэдэгтэй хүнд талыг хардаг.				
46	насан өөр өөр өдөр хангалуун гэдэгтэй хүнд талыг хардаг.				
	насан өөр өөр өдөр хангалуун гэдэгтэй хүнд талыг хардаг.				
47	насан өөр өөр өдөр хангалуун гэдэгтэй хүнд талыг хардаг.				
	насан өөр өөр өдөр хангалуун гэдэгтэй хүнд талыг хардаг.				
48	насан өөр өөр өдөр хангалуун гэдэгтэй хүнд талыг хардаг.				
	насан өөр өөр өдөр хангалуун гэдэгтэй хүнд талыг хардаг.				